5년간 수능 전국 1위…세계도 주목한 '실력 광주' 비결

공교육 살리고 학교간 선의의 경쟁 유도

'지난 5년간 수능 전국 1위'를 달성한 광주 교육이 2010학년도 수능에서도 높은 성적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타 시·도 교육청은 물론 교육 선진국인 영국 등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실력광주'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500여명의 교원이 광주를 방문했으며, 영국의 교원 단체에서는 교육 전문가까지 파견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광주교육이 찬사를 한몸에 받은 데 이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각종 공식행사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광주의 교육 정책을 배워라. 교과부도 배우겠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0년 새학기를 앞두고 '실력 광주'의 비결을 살펴봤다.

◇"학교교육에 승부를 걸어라"=광주의 고교 3학년 교실은 밤 10시가 돼도 환하게 밝혀져 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수준별 방과후 수업을 하고, 저녁 식사 후 교실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야간 자율학습)을 진행한다. 밤 10시 이후까지 진행되는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100%에 가깝다. 이는 광주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신뢰하는 징표다.

광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공부에 관한 모든 것을 학교에서 책임진다는 것이다. 대학 진학시에도 고교 3년동안의 학생 데이터와 수능 성적 등을 토대로 대학 배치 기준표를 학교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다. 2010학년도 수능에선 전국 최초로 광주만의 대입진학배치표를 만들어 전국 고교 교사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사설 대입 기관에서 내놓은 배치표의 정확도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공교육 활성화로 신뢰도를 높여라"=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07년 이후 '공교육 활성화'에 몰두 중이다. 이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다. 공교육 활성화 정책 중 '빛고을 학력 신장프로젝트'는 최우수 정책으로 꼽힌다.

시 교육청은 빛고을 학력 신장프로젝트를 통해 ▲부진학생 제로화 운동 ▲수준별 맞춤식 수업 ▲독서·논술·토론·토의 교육 강화 ▲광주교육아카데미 및 교사수업사랑방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전국 평균을 밑돌았던 영어 정복 정책도 공교육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됐다.

광주지역 고교생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학에선 두각을 나타냈지만 영어 성적은 전국 평균 성적의 이하였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지난 2007년 전국에서 최초로 국제 교육팀을 신설하는 한편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역점시책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2009학년도 수능 외국어(영어)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광주 학생은 전국 평균보다 1.41배나 높아졌다. 이는 2008년 수능보다도 28.2%가 늘어난 것이었다.

◇"고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라"=광주는 과학고 한 곳을 제외하면 외국어고나 특목고가 전무하다. 이에 따라 매년 우수 예비 고교생(중 3) 가운데 200여명 정도가 타 시·도의 특목고와 외고 등으로 빠져 나가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광주는 5년 연속 수능 전국 1위, 서울대 합격률 1위, 1, 2등급 비율 1위 등 모든 대입 진학지표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광주만의 고교 진학제도인 '고교 선택제'를 일등공신으로 꼽는다.

광주의 고교 입시는 전체 신입생 중 40%를 1차 1지망 학생들로 추첨 선발한다. 성적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고교 2곳에 원서를 내는 방식이다. 1차 지원 학교에서 탈락하면 거주지와 가까운 5개 학교를 중심으로 배정된다.

고교 선택제는 사립학교가 많은 광주에서 무한경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성적이 나쁜 학교의 경우 우수 예비 고교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때문에 학교간 성적 향상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학생의 몸에서 가까운 곳부터 개선하라"=시 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105곳을 비롯, 중학교 61곳, 고등학교 47곳, 특수학교 4곳 등 모두 217곳에 사업비 651억원을 들여 현대식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다. 광주지역 282개 모든 학교에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것이다.

이와 함께 책·걸상 등 교육 기자재와 교실, 화장실, 급식실 등 학생들과 밀접한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안순일 시 교육감은 "학생의 몸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개선하는 게 광주 교육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거대 시설물 신설 등 '보여주기식' 투자는 광주에선 금기 1호 사업"이라고 말했다.

◇"교육자의 마인드 변화가 중요하다"=지난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 "16개 시·도의 5년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이 첫 부임한 지난 2005년 광주의 언어영역 순위는 전국 13위, 수리영역은 8위에 불과했으나, 3년 만에 두 과목 모두 1등이 됐다"면서 "광주의 사례처럼 교육감 한 사람이 바뀌면 성적도 바뀌게 된다"며 교육자의 마인드 변화를 주문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광주는 타 시·도에 비해 교육 여건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대규모의 교육 지원금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공부를 유독 잘하는 비결이 궁금하다"며 그 비결을 묻기도 했다.

이 처럼 광주교육이 '실력광주'의 명성을 얻은 데는 안순일 교육감의 '학생중심' 교육 정책이 큰 힘이 됐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안 교육감이 부임한 2005년 이후 광주 학생의 실력이 급상승했다는 점이 이를 대변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교육 활성화 사교육 없애고 신뢰도 높여
고교 선택제…우수학교에 학생들 몰려
작년에만 651억원 들여 교육 환경 개선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 논술 교육 강화, 교사의 자질 향상 등을 담은 '빛고을 학력 신장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 위부터 사이버 가정학습, 진학부장협의회의 자료 분석 회의, 고교 논술 교실 모습.

"광주교육 경쟁 상대는 국내 아닌 세계와 미래"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광주교육의 경쟁상대는 국내가 아닌 세계와 미래입니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14일 "세계화 시대에 맞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시점에서 국내 타 시·도와 경쟁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며 "광주 학생의 경쟁상대는 국내 학생이 아닌 선진국 학생이며, 미래 교육"이라고 자신의 교육 철학을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를 위해 "모든 교육 정책을 10년 후에 맞춰 개선중에 있다"며 "교육은 과거의 실적(성적)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교육감은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국제 교육팀을 신설하고, 영어교사의 원어민화, 원어민화상 콜센터 등 영어 교육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와이오밍주의 현지 교사 30명을 채용해 정규시간은 물론 방과후 영어 수업에도 활용하고 있는 원어민화상 콜센터는 교과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교육 정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 교육감은 "국제화 시대에 영어라는 언어는 기본"이라면서 "영어교육의 강화는 좋은 영어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단순한 차원이 아닌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영어 교육 기반 구축 집중 U-러닝 사업 추진도 박차"

안 교육감이 국제 교육과 함께 추진중인 중요 교육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도중인 '학생중심 u(유비쿼터스)-러닝 교육도시건설 프로젝트(이하 u-러닝)'다.

시행 1년째를 맞은 이 프로젝트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 육성하고 교수(敎授)·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교과부도 최근 u-러닝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 교육감은 "실력 광주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선 한발 빠르고, 선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면서 "u-러닝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러닝 사업 첫 해인 지난해 시행한 공부 도중 궁금한 점을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학습지원 콜센터와 2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이버가정학습 '빛고을샘' 등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학교내 유·무선 인터넷망 확충과 학교와 교육 관련 전문가, 퇴임교원, 지역사회 등을 총 망라한 인적자원 확보 등 물적·인적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학습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안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도시에서 공부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학교와 교사, 교육청의 교육 시스템을 믿고 따라준다면 '글로벌 인재'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 교육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